

### 사설

## 민족공동체본부에 바란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발족되었다. 이는 조계종단이 눈앞에 다가온 통일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동안 최대의 종단이면서도 통일문제 등 민족이 하나되는 미래에 대해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부족했던 것이 조계종단의 현실이다. 그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것 중의 하나가 북한과의 교류에 있어 고정된 창구가 없어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신뢰를 쌓지 못했다. 우리는 조계종의 행보에 큰 기대와 환영을 표하지만, 이 기구가 남북 문제에 대한 단일 창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민족의 밝은 미래를 가꾸어내는 산실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불자들의 통일 의식을 고양시켜 집단적 내적인 활동이 우선되어야 하며 일개 단체와 같은 위상으로 조그만 가시적인 성과를 탐하지 말고 진정한 통일운동의 토양을 형성하여 갖가지 통일 운동이 꽃을 피우고 통일 역군들이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헌들을 결집하여 불교계의 다양한 통일 운동들이 각자 제자리를 찾으면서도 공통된 지향점을 갖도록 하는 지도적 위치를 지닐 필요가 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종단의 대표성을 갖는 기구라는 위상이 있기에 다른 통일 운동 단체와 달리 큰 힘을 지닐 수 있다. 우선은 전국의 사찰에 통일운동의 기본 지침을 제정하고, 그 지침을 바탕으로 합한 통일운동의 염원이 옮겨 나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 분단 현실이 우리 민족에게 주고 있는 괴로움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그 괴로움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근본 이념인 '이교득락'의 현실적인 목표임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극복을 통해 보다 나은 민족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불교계 실현의 과정임을 천명하여야 한다. 우리 개개인 속에 적대적인 의식 등으로 잠재되어 있는 분단의식의 극복없이 개인적인 해탈도 불가능함을 밝히, 개인의 수행과 공동체 형성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불교적 이론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시적인 작업 위에서 통일에 대한 불교의 의식을 극복하며, 북한 돕기 운동 등을 통해 남북한의 신뢰를 쌓고, 그것이 통일 뒤의 빛나는 민족 공동체 형성의 밑거름이 되게 하는 일이 바로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의 긴 여정이다. 온 불자들의 기대가 걸린 만큼 그 책임과 사명도 크다.

## 혜불, 편협한 종교이기주의

혜불사건이 또 발생했다. 그것도 지식의 전당이라 불리는 대학 내에서 벌어졌다. 대학 내에서 벌어진 일에서 우선 개신교신자 학생의 소행으로 의심받게 추측해 본다. 종교적 신념은 신앙인에게 있어 길이며 희망이며 생명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고 사회적 규범도 있으므로 그 신념을 표현하는 데는 절제와 상식이 요구된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표현이라 해 폭력과 굴상상을 통해서라도 무작정 실현시키려 한다면 그런 종교는 이미 세상을 구원하는 종교가 아니라 갈등과 파멸을 초래하는 종교가 되고 말 것이다. 그것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관련 전쟁들이 입증하고 있는 터이다.

이번에 동국대에서 벌어진 혜불사건은 우리를 분노하다 못해 서글프게 한다. 최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이종종교들이 축하메시지를 보내오는데 등 종교간에 일고있는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의 물상식한 행동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고 그들이 목격하는 선교에 역행하는 것인지를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니 결과가 명쾌하게 나타날지

의문이다. 경찰은 혜불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범이나 정신이상자 소행으로 추측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가 하면 종교갈등 문제로 바라보아 폭력이라는 사회적 해악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보다는 마치 종교갈등에 갇혀 간여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신앙의 자유, 선교의 표현을 보장한다는 미명아래 이런 광신적 폭력만 행위를 방조, 용인하려는 경찰당국의 태도가 이런 일을 계속 조장시키고 있다는 점을 각성하고 철회할 수 있기를 기약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동국대에서는 개신교학생들의 동아리연합회 가입을 두고 갈등을 빚어와 이번 일이 이와 관련된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 줄 안다. 따라서 동국대 당국에서도 태극화 경우를 참고 가능한 학생들의 활동을 보장에 주되 혜불사건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는 방향으로 전환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예컨대 이같은 혜불사건이 발생하면 향후 몇 년간 동아리연합회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며 가입이 받아들여져 활동을 할 때에도 이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 향후 몇 년간 가입을 취소하고 활동을 제한시키는 등의 내규조치를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 게놈 프로젝트와 불교 생명관

- ① 유전자 조작, 인간존엄 파괴인가
- ② 불교적 관점에서 본 유전자 조작
- ③ 현재의 행위(業)가 중요하다

## 찬성 “불치병 치료” - “맞춤 인간화” 반대

### ● 게놈 프로젝트의 목적과 문제점

인체게놈(유전자)이 완벽하게 분석되면 면역체계를 조절하는 유전자 기능을 알아냄으로써 암은 물론 치매나 당뇨병,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에서부터 에이즈까지도 정복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바이러스성 질환도 해당 바이러스와 반응하는 유전자를 찾아 기능을 조절하거나 교체해 버리면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게 된다. 또 인공 장기를 예비 부품처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게놈 프로젝트는 바로 오래 살아가는 인류의 오랜 소망을 이뤄낼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그런 인류의 꿈은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가까운 미래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형질이 제거되거나 교체된 아이를 낳는 날이 올 것으로 과학계는 예상하고 있다. 즉, 맞춤형인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공 장기에 인공 자궁, 인공 망막, 전자 코 등 인체 어느 부위든 원하는 대로 갖춘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뇌의 복제까지도 이뤄지게 된다. 2030년쯤으로 예상되는 두뇌의 상시제 도 완성되면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인간 기능을 복제하게 되고, 따라서 원할 경우 수백만 배 강화된 '뇌'를 가질 수도 있게 된다. 21세기 인간은 자신과 기술을 섞은 새로운 종(種)이 된다는 의미이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 조작을 통해 '우월한 계급'과 '그렇지 않은 계급'으로 나뉠 이 이른바 '유전자 계급 사회'가 도래할 수도 있다. 열등 유전자를 몰아내 인간특성을 '개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인류가 경제력에 따라 계급이 나뉠 것을 의미하며, 열등한 인간은 살아남기 어렵게 된다. 또 인간복제술의 상업적 이용이 횡행하고, DNA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개발되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첨단기계로만 구성된 기업들도 속속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게놈 프로젝트가 목적이었던 것과는 반대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가치는 파괴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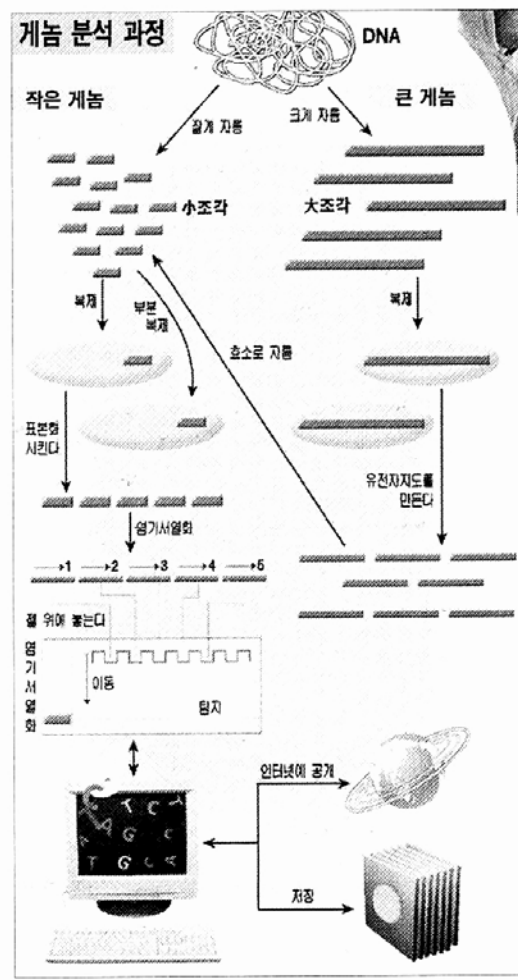
### ● 윤리·도덕적 문제

유전자 조작은 '자연'과 '사회'의 경계가 무너짐을 의미한다. 과학적 기술이 개입된 사회가 자연의 결정권에 해당하는 '생명의 탄생'을 좌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유전공학은 생물체에 주어진 유전형질을 인위적으로 변형 해 조어 새로운 형질을 가진 생물체를 만들어 내도록 생물의 종(種)과 속(屬)의 차이를 없애게 된다.

유전공학에서는 모든 생명체의 생로병사와 인간의 희비애락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유전공학이 보다 완전한 인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 존재를 불완전한

게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전공학에서는 인간이든 어떤 생명체든 극복과 보완의 대상이며,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다는 관념은 유전공학에서 볼 때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가설도 성립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전공학의 생명관은 '유전자 결정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생명관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불교에서는 생명의 탄생과정을 태생(胎生·모태에서 태어나는 것)·난생(卵生·알에서 태어나는 것)·습생(濕生·습기로 태어나는 것)·화생(化生·다른 것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태어나는 것)의 사생(四生)으로 분류하고, 이를 육취중생(肉 취 중 생)이라고 부르고, 이를 육취중생이라고 생명의 탄생과정과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생명의 기원보다는 생명에 대한 사랑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이 그 자체로서 존중되고 존엄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계급은 아예 인정되지 않는다.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유전자를 받았느냐 보다는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 게놈이란 DNA 담고있는 염색체 세트

'게놈(Genome)'이란 유전물질인 다중사리보핵산(DNA)을 담고 있는 그것에 해당하는 염색체 세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를 합성한 용어. 'genome'을 독일식으로 발음한 것으로, '게놈 프로젝트'란 생명체의 DNA 서열을 모두 밝혀내는 계획을 말한다.

인간게놈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각각 쌍으로 된 23개, 즉 46개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게놈의 염색체 속에는 약 30억개의 DNA염기쌍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키, 피부색, 생김새 등 외형적 특성 외에 성격과 소질 등의 유전형질이 결정된다.

## 인간 유전자지도 곧 공개 2030년 인간지능 복제

### 불교적 시각 찬반 양론

그러나 서로 다른 생명관과는 달리 불교적 관점에서의 윤리·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서로 맞서고 있다.

우선 탄생과정에서 개입되지 않고 모든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불교가 단순히 유전자 조작행위에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유전자 조작이 나 생명복제가 한 생명체 안에 한 생명체가 깃들었다고 하는 불교적 관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전자 조작이라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정신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반대로 생명질서를 유지하는 다름의 원리, 즉 연기와 윤회의 법칙을 파괴하며, 인간의 실체가 부정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또 아직 결과도 모든 게 실험실 단정할 수 없다는 '교리적 해석 유보'의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도 있다. 기본교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생명공학을 통해 기대되는 선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남여 정토불교수강생 모집

■ 기본과정 (3개월)  
불교학개론(반야심경, 불교성전)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식, 쇠숯, 상단예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상축원, 불공시식 등

● 불교예절(교양 상식 계명 언행) 사비리태 초발심 자경의 해설  
● 신도5계 득도수계 입실전단 보살계 비구비구니계 해설 및 수계  
● 사달림법(망출 위해 작성 독경 염불) 반혼1회~6회 천도 발인 화장 예절  
● 49재(시령 대령 관육 저장정 시식 불송 소대)  
● 법당 불상 영화 언단 및 불기구 배치법  
● 목탁식 종성 예불기도 축원법 좌선법(간화선 목조선 선학역사)  
● 불공 기도 축원법(삼보통정 관음지장선종 산신 칠성 독성 발원)  
● 목탁 요령 촉비 경종 사옹법 신중작법 구병시식 관음시식 상요염반  
● 화엄시식 종사 염반 집안식 삼재불이 화문식 원에 따라 수계식 불행  
● 불교교리 및 불교 역사 중요문자 발원 경의 남급 개설 사업 운영등

◆ 모집인원 : 27명(선착순) ①교리반 9명 ②사물반 9명 ③포교반 9명  
◆ 원사접수 : 현재 접수중  
◆ 개강일시 : 매월 1월 11일 21일 개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려정토도국에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서범초반의 수계득도, 포교원(승려)의 지도와 편이 제공  
◆ 초심자, 승니, 재가, 불교전문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월 회 비 : 백민(기대)대(초식제공)

인원평역시 계양구 계산동 926-27(나드리프라자 4층)  
**한국불교 정토종 불교대학**  
전화 032) 543-2693~57

## 금선학회 수련회

왕리명(전진도 운문파 18대 계승자) 선생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영보동 지능농공법' 한국 최초 공개

『慧命經, 대성정경의 저자 유휘화(禪師)를 깨달음에 이르게 한 수행비전』  
유휘화(선사) 9대 계승자)께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법을 찾아 중국 전역을 헤매시다 호운 老師과 오홍화 眞人(8대 계승자)으로부터 법을 전수받아 수행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法輪과 전법역(化神의 실제)", 몸과 마음이 허공과 같이 진리와 하나되는 경계를 몸소 이루게 한 최상승 수련비전

영보법법은 1년을 수행하면 1년의 공행이, 3년을 수행하면 3년의 공행이, 그리고 10년을 수행하여 大成에 이르게 하는 "漸修漸進 수행법"이며, 상근기는 물론이고 중·하근기의 중생이라도 영보법법의 수련체계(몸과 마음을 동시에 닦는 性命雙修 수행법)로 꾸준한 수행하면 반드시 최상승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완벽한 修眞體系입니다.

수련 내용  
1) 오장육부의 기운을 조화롭게 이끌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법  
2) 목두침술과 인체의 기운을 상응시켜 천체우주로 나를 확대하는 법  
3) 몸과 마음을 동시에 수련(性命雙修)하여 번성공에 이르는 법  
4) 혜문(法眼, 佛眼, 天眼)수련을 통하여 法界 전리를 깨닫는 법

◆ 수련의 효과  
1) 정신적·물리적, 우울증, 각종 스트레스, 노이로제, 회병 등  
2) 육체적·안정적, 변비, 만성위장병, 심장질환, 신경병, 비만, 고혈압, 간경화, 오장의 부조화, 냉병 등  
3) 수행·정신수행시 자율방직 및 집념제거, 삼매체행(我我一如)

◆ 수련일정 및 장소  
1일 시: 1차 2000년 6월 3일, 10일, 17일, 24일 (오후 2시 ~ 5시)  
2차 2000년 6월 20일(화) ~ 24일(토)  
20일 ~ 23일 (오후 6시30분 ~ 8시30분), 24일(토) (오후 2시)  
2장 소: 세계금선학회 본원(사당역 부근)

**세계금선학회**  
서울 서초구 방배2동 441-1 한해빌딩 6층 (02)5'2-7057, 7233(렉스경동)  
(http://www.myhome.snibro.com/~kumunac)

##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께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관질환(고혈압, 저혈압), 아관족,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경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강화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약 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부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성질을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으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영화하는 분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분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도록  
기회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분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코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산삼보존(산삼) 연구협회의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